

2017 서울시 9급 국어(2017. 6. 24.) 해설 및 총평

남부 해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번호	내용	범위	번호	내용	범위
1	로마자 표기법	문법	11	속담의 이해	어휘
2	한글 맞춤법	문법	12	한자어	한자
3	국어사	고전문법	13	띄어쓰기	문법
4	글의 짜임	비문학	14	문장의 이해	비문학
5	시의 감상 <윤동주, 별 헤는 밤>	문학	15	문학사	문학
6	반의어	어휘	16	고유어의 이해	어휘
7	단어의 형성	문법	17	한자어	한자
8	한글의 이해	고전문법	18	음운 현상	문법
9	논리의 오류	비문학	19	문맥 유추	비문학
10	서술자의 이해 <채만식, 지숙>	문학	20	내용 유추	비문학

2. 분야별 분석

문법	비문학	문학 & 고전문법	어휘 및 한자
5(25%)	5(25%)	5(25%)	5(25%)
단답형 지식 문제		박스형 지문 및 이해	
12(60%)		8(40)%	

3. 전체 총평

1. 비교적 국어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어휘 및 한자의 비중이 30%까지 증가하였고, 다시 한자와 국어의 다른 영역을 연계하여 묻는 문항 2개를 추가하면 그 비중은 전체의 40%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어휘와 한자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시험장에서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휘와 한자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유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 되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기가 요원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체 문항 가운데 박스형 지문의 비중이 매우 높아 실제로 시험장에서 제시된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상시에 난도가 있는 문제들로 미리 꾸준히 풀어보는 연습이 선행되어야만 시험장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찾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3. 기출 문제의 재활용이 매우 눈에 띈다. 정지용의 <인동차>나 조지훈의 <지조론>은 문제의 초점은 달리 하였으나 지문 자체를 다시 활용하였고, 한자나 어휘에 있어서도 기존의 내용을 재활용하여 출제 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기출 문제는 유형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다.

4. 수험생은 출제자가 아니다.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이자 최선이다. 단순한 문법 위주의 학습이 아닌 국어 전 영역에 걸친 고른 학습이

필요하며, 고득점과 합격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국어의 특정 영역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 물론 이미 기존의 수험생들이 선점하고 있는 문법의 영역을 기본적으로 다지는 것은 필수라 하겠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문법에서의 실수는 이번 시험에서 치명타라고 할 수 있다.

5. 문제풀이 및 여러 수업에서 다룬 동일한 문제와 동일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론이나 특강 시간에 다룬 내용도 그대로 문제화되어 늘 감사한 마음이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수업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소망한다. 늘 그러한 일이며,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적중의 신(神)'의 경지에 이르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응원한다. 더불어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정답: ②

-[해설]

'학여울'의 표준 발음은 [항녀울]이다. 이에 따라 로마자로 'Hangnyeoul'로 표기한다.

-[오답 정리]

- ① '선릉'의 표준 발음은 [선능]이 아니라 [설릉]이다. 따라서 로마자로 'Seolleung'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낙동강'의 표준 발음은 [낙똥강]이 맞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Nakdonggang'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집현전'의 표준 발음은 [지편전]이 맞다. 체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의 경우 'ㅎ(h)'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Jiphyeonj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③

-[해설]

'뒤+풀이'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뒤풀이'가 맞다.

뒷말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면 안 된다.

-[오답 정리]

- ① 부는→붙는: '붙다'가 기본형이다. 따라서 '붙는'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넉넉치→넉넉지: ‘ㄱ’ 받침 뒤의 ‘하’는 아주 줄기 때문에 ‘하’가 탈락한 ‘넉넉지’의 형태가 어법에 맞다.

④ 로써→로서: ‘도구, 재료’의 의미일 때는 ‘로써’를, ‘자격, 지위’의 의미일 때는 ‘로서’를 쓴다. 문맥상 ‘자격, 지위’의 의미이므로 ‘로써’가 아니라 ‘로서’를 써야 한다.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③ ‘ㆍ’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④ ‘뽕’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뽇’으로 변화였다.

-정답: ①

-[해설]

띄어쓰기를 처음 한 것은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이고, 규범화된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이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옳다.

-[오답 정리]

② 주격 조사 ‘가’는 아무리 이르게 잡더라도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우리 국어에 등장했다. 따라서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주격 조사 ‘가’는 일반적으로 17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본다.

③ ‘ㆍ’의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도 확인은 가능하다.

④ ‘뽕’이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된 것은 맞지만, ‘뽇’이 아니라 ‘ㅅ/ㅈ’로 변했다.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놀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늣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의 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려면 글의 중심 내용이 문단의 첫머리에 와야 한다. 따라서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란 ㉠이 가장 앞에 와야 한다.

-[오답 정리]

㉠을 제외한 나머지는 ㉠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앞에 올 수 없다.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③

-[해설]

‘별’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등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오답 정리]

- ① 화자가 청자로 설정한 대상은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니라 ‘어머니’이다.
- ② 화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별’은 화자의 지향을 상징할 뿐이지,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작품 정리] 윤동주, <별 헤는 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성찰적, 의지적, 사색적
제재	별
주제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특징	① ‘현재 -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하여 운율의 변화를 줌.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 ② 높다 - 낮다
- ③ 늙다 - 젊다
-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①

-[해설]

‘반의어’는 크게 ‘상보 반의어’와 ‘정도 반의어’로 나뉜다. ‘정도 반의어’와 달리 ‘상보 반의어’는 중간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모두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즉 ‘살다’와 ‘죽다’ 사이에 중간항은 없기 때문에 ①은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오답 정리]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간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도 반의어’이다. 즉 두 단어를 모두 긍정하거나 부정해도 말이 된다.

② ‘저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가 가능하므로 ‘정도 반의어’이다.

③ ‘그는 늙지도 않았고, 젊지도 않았다.’가 가능하므로 ‘정도 반의어’이다.

④ ‘커피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가 가능하므로 ‘정도 반의어’이다.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 ② 금지곡(禁止曲)
- ③ 한자음(漢字音)
-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①

-[해설]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개살구(개-+살구), 헛웃음(헛-+웃음[웃-+-음]), 낚시질(낚시+-질), 지우개(지우-+-개)’와 같이 ‘접사’와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므로 파생어이다.

이와 단어 형성 원리가 동일한 것은 ①이다.

‘건어물’은 ‘마른’ 또는 ‘말린’이란 뜻을 더하는 접두사 ‘건-’에 ‘어물’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보기>와 단어 형성 원리가 같다.

- ※ 건-[접두사]: 1.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겉으로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근거나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오답 정리]

나머지는 모두 '어근+어근'의 결합이므로 파생어가 아니다.

- ② 금지+곡
- ③ 한자+음
- ④ 핵+폭발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 ② 늦거사
- ③ 바올
- ④ 가비야븐

-정답: ④

-[해설]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는 '빙(순경음비읍)'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충]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				
오 음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순음(脣音)	ㅁ	ㅂ ㅃ		입의 모양
치음(齒音)	ㅇ	ㅈ ㅉ	ㅊ	이의 모양
후음(喉音)	ㅇ	ㅎ		목구멍의 모양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정답: ①

-[해설]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군중예의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즉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한다고 내세워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한 것은 ①이다. 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맛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정리]

②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참 혹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오류인 ‘무지에의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③ ‘개그맨이 유명한 것’과 ‘식당의 음식 맛’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식당의 음식 맛이 좋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오류인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④ 이 식당에서 밥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말을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을 유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동정에의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러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밀 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예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쯤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지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④

-[해설]

서술자 '나'는 내지인 여자와 결혼하여 내지인처럼 살고 싶어 한다. 당시 시대상을 비취봤을 때 '나'는 역사의식이라곤 조금도 없는 인물이므로, 독자는 서술자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을 본 독자는 '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정리]

- ① 서술자는 내지인 여자와 결혼하여 내지인처럼 살고자 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내지인(일본인)'을 비판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서술자는 전지적 존재가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작품 정리] 채만식, <치숙>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배경	시간: 일제 강점기 공간: 서울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특징	①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현실을 이중적으로 풍자함. ② 대화적 문체를 통해 '나'와 '아저씨'의 가치관을 비교함.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 ② 분주함
- ③ 성급함
- ④ 뒷고생

-정답: ①

-[해설]

㉠ '가물에 도랑 친다.'는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북한말이다.

㉡ '까마귀 미역 감듯'은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 ㉡의 속담은 공통적으로 ‘헛수고’와 관련이 깊다.

[어휘]

㉣ 뒷고생: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고생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도치
- ② 改悛- 개전
- ③ 殺到- 살도
- ④ 汨沒- 일몰

-정답: ②

-[해설]

‘改悛(고칠 개, 고칠 전)’의 한자 독음은 ‘개전’이 맞다.

-[오답 정리]

① 陶冶(도치→도야): ‘冶(풀무 야)’의 독음은 ‘치’가 아니라 ‘야’이다.

※ 冶(다스릴 치)

③ 殺到(살도→쇄도): ‘殺’이 ‘죽이다’의 뜻일 때는 ‘살’로 읽히지만, ‘빠르다’의 의미일 때는 ‘쇄’로 읽힌다. 따라서 ‘살도’가 아니라 ‘쇄도’이다.

④ 汨沒(일몰→골몰): ‘汨(골몰할 골)’의 독음은 ‘일’이 아니라 ‘골’이다.

※ 日(해 일)

[어휘]

㉡ 개전(改悛):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1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 창 밝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썩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 밖에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아라비아 숫자와 의존 명사 ‘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따라서 ‘30년’의 띄어쓰기는 옳다.

또 '동안'은 의존 명사이므로 '30년'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㉔의 '30년∨동안'의 띄어쓰기 표기는 옳다.

-[오답 정리]

① 창∨밖→창밖: '창문의 밖'이란 뜻을 가진 '창밖'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우단천→우단∨천: '우단'은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으로 '벨벳'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 '우단'과 '천'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일∨밖에→일밖에: '일' 뒤의 '밖에'는 조사이다. 따라서 '일밖에'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14.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 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 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 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에서 연락을 취한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우리'이다. 따라서 ㉢의 주어는 '우리'이다.

-[오답 정리]

㉢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어는 모두 '환자'이다.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 ㉠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김지하 등의 참여 시인들이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1970~1980년대이다.
 ㉡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출간되었고, 카프가 결성된 시기는 1920년대이다.
 ㉢ 전쟁의 참여한 시인들이 선전 선동시를 창작하고, 구상이 「초토의 시」를 발표한 것은 1950년대이다.
 ㉣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과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가 발표된 시기는 1930년대이다.
 따라서 이를 시간 순서에 맞게 배열하면, '㉠ - ㉡ - ㉣ - ㉢'이다.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② 굴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②

-[해설]

‘굴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오답 정리]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란 뜻을 가진 말은 ‘굴적대다’가 아니라 ‘금실거리다’이다.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舉

-정답: ②

-[해설]

‘사고’는 ‘생각’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思考(생각할 사, 생각할 고)’의 한자 표기는 적절하다.

-[오답 정리]

① 토의(討義→討議): ‘토의’는 의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討議(칠 토, 의논할 의)’로 표기해야 한다.

③ 선택(先擇→選擇): ‘선택’은 ‘골라 뽑음’이란 의미이므로 ‘選擇(가릴 선, 가릴 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④ 준거(準舉→準據): 문맥상 ‘근거, 기준’이란 의미이므로 ‘準據(준할 준, 근거 거)’로 표기해야 한다.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정답: ④

-[해설]

‘한여름’은 [한+여름→(ㄴ첨가)→한녀름]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④의 ‘한여름’만 ㉢의 ‘첨가 현상’이 나타났고,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의 ‘대치 현상’이 나타난 예이다.

-[오답 정리]

① ‘국만’은 ‘ㄱ’이 비음 ‘ㄹ’에 동화되어 비음 ‘ㅇ’으로 대치되었다. ㉠ 비음동화

② ‘물난리’는 ‘ㄴ’이 ‘ㄹ’에 동화되어 유음 ‘ㄹ’로 대치되었다. ㉠ 유음화

③ ‘입고’는 ‘ㄱ’이 경음 ‘ㄱ’으로 대치되었다. ㉠ 경음화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②

-[해설]

㉠ 바로 앞 문장에서 인간의 활동과 자연 내부 모두 ‘대립과 통일’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진의 또한 이 둘의 일여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라 했다. 앞뒤 내용을 고려할 때 둘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정리]

- ①, ③ ‘즉’은 앞의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쓰는 부사인데, ㉠ 바로 앞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 바로 다음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량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자세에 따라 산이 다르게 보였다는 내용이다. 한 가지 자세를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자세를 취했다는 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한 내용과 연결이 되므로 ④의 내용이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오답 정리]

- ① ‘무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빨래를 한 날 바로 풀을 먹인다는 내용에서 글이 마무리되었다면,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에 따라 산이 다르게 보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②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 부적절하다.

③ ‘종교적 의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70613 적중 하프 모의고사 3번, 2017 신의 한 수 <공식노트> 99페이지 / 37페이지 / 102페이지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정답: ①

[해설]

퍼레서: ‘퍼렇다’가 기본형이다. ‘퍼렇다’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ㅎ’ 불규칙 용언이다. 즉 ‘퍼렇-+-어서→퍼레서’와 같이 활용하므로 ‘퍼레서’의 표기는 어법에 맞다.

[오답 정리]

② 또아리→파리: 문맥상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모양’의 의미로 쓰였다. 이 경우와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은 ‘파리’의 형태만 표준어이다.

※ ‘갈컷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을 가리키는 말은 ‘또아리’가 표준어이다.

③ 머릿말→머리말: ‘머리+말’이 합성되는 과정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머리말’이 표준어이다. ※ 머리말, 인사말, 반대말 / 노랫말

④ 잠귀야→잠가야: ‘잠구다’가 아니라 ‘잠그다’가 기본형이다. 따라서 ‘잠그-+어야→잠가야’와 같이 활용하며 ‘잠가야’로 표기해야 어법에 맞다.

20170422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2번, 20170603 지방직, 서울시 동형 문풀 19번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②

[해설]

‘말길이 되다’란 관용어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란 의미를 가진다.

tip! 정확히 관용구를 알지 못해도 문맥상 의미를 확인하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말길: 1. 말하는 길 2. 말하는 기회 또는 실마리

[오답 정리]

- ① 말꼬리를 물다: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③ 말이 있다: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맛을 붙이다: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보충] ‘말’과 관련된 관용어

말을 내다	1. 어떤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다. 예 뭘로 말을 내 보지?
말을 듣다	2. 비밀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예 누가 말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다.
	1. 꾸지람을 듣거나 시비의 대상이 되다.

	예 그런 일로 남의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2. 기계, 도구 따위가 다루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다. 예 손잡이가 녹이 슬었는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이 굳다	1. 말이 더듬더듬 막히다. 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이 굳어 있었다. 2. 말의 내용이나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다. 예 너무 말이 굳어서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말이 무겁다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다. 예 남자는 말이 무거워야 한다.

20170610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문물 3번, 실전 400제 42페이지 4번, 실전 400제 42페이지 3번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찜: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
--

- ① 80
② 82
③ 90
④ 94

정답: ④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수는 다음과 같다.

찜	‘찜’은 바늘 ‘24’개를 묶어 세는 단위이다.
제(劑)	한 제는 탕약 ‘20첩’을 이룬다.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이룬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4+20+50=94’이다.

20170519 적중 하프 모의고사 1번, 20170605 적중 하프 모의고사 4번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 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 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 查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객관적 상관은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공식 역할을 하는 대상물이다. 시에 등장한 객관적 상관은 3가지로 ‘春雨(춘우, 봄비), 輕寒(경한, 찬바람), 杏花(살구꽃)’이다.

※ 객관적 상관물: 나의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나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특정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을 가리킨다.

3가지의 객관적 상관물 가운데 ‘화자와 동일시 된 것’ 즉 ‘이것이 나와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 ‘杏花(행화, 살구꽃)’이다. 화자는 계절이 지나가며 떨어지는 살구꽃을, 세월이 흘러 젊음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저 떨어지는 살구꽃이 나 같아요.)하고 있다.

[오답 정리]

① ‘春雨(춘우, 봄비)’를 본 것을 계기로 화자가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느낀다. 즉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은 객관적 상관물이 맞다. 그러나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 앞의 ‘찬바람’은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맞다. 그러나 ‘장막’ 자체로는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이 없다.

※ ‘찬바람’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은 아니다.

③ ‘병풍’은 화자가 시름에 겨워 기대는 대상으로, 객관적 상관물도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도 아니다.

[작품 정리] 허난설헌, <봄비>

갈래	한시, 5언 절구
성격	서정적, 애상적, 독백적
제재	봄비
주제	규중 여인의 고독과 외로움
특징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 한시 독음: 춘우암서지/경한습라막/수의소병풍/장두행화락

2017 기출정해 467페이지 35번, 2017 기출정해 472페이지 46번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테고
아히야 네 권농 겨시냐 덩좌슈(鄭座首) 왔다 히여라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③

[해설]

‘언치 노하’는 현대어로 ‘언치를 놓아’란 의미이다. 엄격한 격식을 갖추었다면 ‘소’가 아닌 ‘말’을, ‘언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안장이나 길마’를 올린 뒤에 ‘언치’를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언치’만 놓고 ‘소’에 올라탄 것을 볼 때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

[오답 정리]

- ① 술을 마시기 위해 벼를 찾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 일으키게 했다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아이’는 화자 ‘鄭좌슈(鄭座首)’의 말을 ‘성권농(成勸農)’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또 호격조사 ‘야’를 붙여 아이를 부른 것을 보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라는 설명도 옳다.

[작품 정리]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깔개(방석)를 얹어서 눌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고 하여라! - 정철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풍류적, 전원적, 목가적, 한정가
제재	성 권농 집의 술과 벼
주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
특징	압축과 생략을 통해 경쾌하게 서술하였으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함.

20170506 적중 하프 모의고사 9번, 2017 기출정해 351페이지 49번, 20170325 국가직 대비 동형 문풀 5번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 ㉡ | ㉢ |
| ① |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정답: ①

[해설]

㉠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또는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이르는 ‘장광설’은 ‘說(말씀 설)’이 아니라 ‘舌(혀 설)’을 써 ‘長廣舌(길 장, 넓을 광, 혀 설)’로 표기한다.

※ 석가모니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길고 넓은 혀(長廣舌, 장광설)였다. 그의 혀는 길고도 넓은데다 한없이 부드러워서 혀를 길게 내밀면 혀끝이 머리카락까지 닿았다고 한다. 석가모니 이전에도 내밀면 코를 덮을 정도로 긴 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장광설’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후에 의미가 변해 한번 말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지도록 끝도 없이 길게 하는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이르는 ‘유언비어’는 ‘非(아닐 비)’가 아니라 ‘蜚(바퀴 비)’를 써 ‘流言蜚語(흐를 유, 말씀 언, 바퀴 비, 말씀 어)’로 표기한다.

※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문에 의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연쇄 반응적으로 퍼지는 말.’이라는 뜻으로 흘러 다니는 말이라는 뜻에서 ‘유언(流言)’이라 쓰고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처럼 퍼지는 말’이라는 뜻에서 ‘비어(蜚語)’라 쓴다.

㉢ ‘핑계나 해명’의 뜻을 가진 ‘변명’은 ‘辯(말씀 변/말 잘할 변)’이 아니라 ‘辨(분별할 변)’을 써서 ‘辨明(분별할 변, 밝을 명)’으로 표기한다.

※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구실을 찾는 것으로 즉 자신의 일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변명’을 ‘辯明’으로 쓰게 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갖게 된다.

2017 해원국어 기출정해 1권 326페이지 7번, 20170607 적중 하프 모의고사 6번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해설]

‘잠착(潛着)하다’는 ‘참착하다’의 원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의 의미다. 따라서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라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한자 독음(순서대로): 노주인, 장벽, 무시, 인동, 풍설, 산중, 책력, 삼동

[오답 정리]

① <山中에 冊曆도 없이 / 三冬이 하이얏다.>를 볼 때 위 시의 공간적 배경은 ‘고적한 산중’이다.

② ‘불(빨강), 무순(파랑)’과 ‘눈(하양)’이 대조되고 있다.

※ ‘불’과 ‘무순’은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눈’은 부정적이고 혹독한 현실을 상징한다. 정지용(1930년대 주지주의 시인)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지어 보면 ‘눈’이 ‘일제 치하’와 관계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인동차’의 ‘인동’ 역시 일제 치하를 참고 견뎌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③ 눈 내리는 겨울, 깊은 산중의 풍경을 회화적 ·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작품 정리] 정지용, <인동차>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회화적, 관조적, 탈속적
제재	인동차
주제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삶의 자세
특징	① 감정을 절제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함. ②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였으며, 색채의 대비가 돋보임. ③ 풍경을 회화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20170610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문풀 7번, 20170429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13번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① [주체 -], [객체 +], [상대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정답: ①

[해설]

주체 높임	문장의 주체(주어)는 ‘나’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로 표시한다.
객체 높임	문장의 객체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을 부사격 조사 ‘께’와 서술어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객체+]로 표시한다.

상대 높임	청자인 ‘숙희’를 부를 때,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 조사 ‘야’를 사용했다. 또 종결어미를 볼 때 반말체(해라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 표시한다. ※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존재하나, 제시된 문제는 상대 높임의 유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임과 낮춤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20170523 적중 하프 모의고사 7번, 20170504 적중 하프 모의고사 3번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칸트’는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바로 앞 문장에서 이에 대한 힌트로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이라고 하여 ‘칸트’가 말한 자율성은 ㉠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인 것’이 확인이 된다.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서 ‘순수미의 영역’과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도덕이나 목적론과 대비하여, ‘칸트’의 자율성이 ㉡ ‘순수 미의 영역이며,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율적인 것을 골라야 한다.

[오답 정리]

나머지는 모두 시의 외적 요소(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와 관련 지어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서술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 작품 비평 방법 가운데 ‘칸트’는 ‘내재적 관점’, 서술자는 ‘외재적 관점’에서의 작품 감상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과 관련지었다는 점에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작품을 창작한 ‘독자’와 관련지었다는 점에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 파적 나을 놈은 생겨나도 앓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 일반…….

- 김유정, <만무방>

- ① ㉠: 심심풀이
- ② ㉡: 안잠
- ③ ㉢: 몰매
-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해설]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안잠’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오답 정리]

① ‘파적(破寂)’은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이란 의미로 ‘심심풀이’와 뜻이 통한다. ※ 심심풀이 = 심심파적 = 파적(破寂) = 파한(破閑)

③ ‘난장(亂杖)’이 ‘맞다’란 서술어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매’란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몰매’와 의미가 통한다.

※ c. f. 난장(亂場) = 난장판

④ ‘사관(四關)’은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맞다.

[작품 정리] 김유정, <만무방>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반어적, 비판적, 토속적
배경	시간: 일제 강점기의 어느 가을날 공간: 강원도 산골 마을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식민지 농촌 사회의 가혹한 현실
특징	①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와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함. ② 일제 강점기의 농민의 궁핍함을 반어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함.

정답: ③

[해설]

③의 ‘깨닫하게(깨닫하다)’만 표준어이다.

[오답 정리]

① 뉘연히→버젓이: ‘뉘연히’와 ‘버젓이’ 중에 ‘버젓이’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버젓이’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② 뒤어내고→뒤져내고: ‘뒤어내다’와 ‘뒤져내다’ 중에 ‘뒤져내다’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뒤져내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④ 허구현→허구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란 뜻을 가진 말의 기본형은 ‘허구(許久)하다’이다. 따라서 관형사형은 ‘허구현’이 아니라 ‘허구한’이다.

[어휘]		
①	버젓이 「부사」	1.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2. 남의 축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②	뒤져내다 「동사」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
③	깨닫하다 「동사」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④	허구하다 「형용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2017 기출정해 235페이지 193번, 20170610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문풀 8번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문맥상 ㉔의 ‘일조’는 ‘에’와 함께 쓰여 ‘하루아침에/갑자기’란 의미이다. ‘하루아침에’란 의미 일 때는 ‘日照(해 일, 비출 조)’가 아니라 ‘一朝(하나 일, 아침 조)’로 표기한다.

※ 一朝(하나 일, 아침 조): ㉑ 하루아침(=갑작스러운 정도의 짧은 시간) ㉒ 만일의 경우

日照(해 일, 비출 조): 햇볕이 내리쬐.

c. f. 日照量(일조량): 일정한 물체의 표면이나 지표면에 비치는 햇볕의 양.

[오답 정리]

㉒ 굳은 고집이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確執(굳을 확, 잡을 집)’의 한자 표기는 옳다.

㉓ 문맥상 ‘교양인에 어울리는 몸가짐을 위하여’란 의미이다. 따라서 ‘예법에 맞는 몸가짐’이란 의미를 가진 ‘威儀(위엄 위, 거동 의)’의 한자 표기는 옳다.

㉔ 센 정도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強度(굳을 강, 법도 도)’의 한자 표기는 옳다.

[작품 정리] 조지훈, <지조론>

갈래	중수필
성격	교훈적, 논리적, 설득적, 시사적
제재	지조
주제	지조 있는 삶의 자세
특징	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지조와 변절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함. ② 단정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체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함.

20170322 적중 하프 모의고사 7번, 2017 지방직 대비 찍기 특강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㉑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㉒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㉓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㉔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㉕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㉑, ㉒, ㉓
- ② ㉑, ㉒, ㉔
- ③ ㉒, ㉓, ㉕
- ④ ㉓, ㉔, ㉕

정답: ②

[해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일단 제시된 단어는 모두 ‘용언의 어간+전성어미’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㉑ ‘흐드러지게’는 **형용사** ‘흐드러지다’의 부사형이다.

㉒ ‘충만한’은 **형용사** ‘충만하다’의 관형사형이다.

㉓ ‘없는’은 **형용사** ‘없다’의 관형사형이다.

※ ‘㉑, ㉒, ㉓’은 모두 현재 시제 ‘-다/는다’와 결합할 수 없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사는 ‘형용사’이다. 다만 ‘없다’는 관형형 어미 ‘-는’을 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답 정리]

㉠ ‘찍은’은 동사 ‘찍다’의 관형사형이다.

㉡ ‘설레는’은 동사 ‘설레다’의 관형사형이다.

※ ‘㉠, ㉡’은 각각 ‘찍는다’, ‘설렌다’와 같이 현재 시제 ‘-ㄴ다’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찍어라, 찍자’와 같이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사는 ‘동사’이다.

[보충]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구분

	현재 시제	명령형	청유형	목적의 ‘-러’	의도의 ‘-려’
동사	○	○	○	○	○
형용사	×	×	×	×	×

20170525 적중 하프 모의고사 4번, 20170601 적중 하프 모의고사 11번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해설]

1문단에서 ‘패러다임의 정착’이 바로 ‘정상 과학’임을 설명한 바 있고, 4문단의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부분을 통해 ‘정상 과학 시기’에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정리]

- ① 2문단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를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이라고 소개하였고, 3문단에서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 정착된 ‘정상 과학의 시기’에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패러다임이란 세계관의 통일이해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문단에서 패러다임은 형성 당초에 불안하다고 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형성이 처음에는 불완전하다는 설명은 옳다.
 ④ 4문단에서 던진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유지’의 방법에 대한 의문으로 쿤의 이것에 대하여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을 통해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고 유추할 수 없다.

20170513 적중 하프 모의고사 11번, 20170527 토요 무료 아틀 5번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해설]

※ tip 각각의 내용을 선택지에 대입하여 본다!

‘어림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란 의미이다. 그런데 ③에서의 ‘잡다’는 ‘담보로 맡다’란 의미이므로 ‘어림하다’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㉔에 들어갈 바른 예문으로는 ‘수험 준비 기간을 세 달로 잡은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무리이다. / 우리는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아 손해를 많이 봤다. / 이 물건의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정도가 적당하다.

[오답 정리]

- ① ‘짐승을 죽이다’란 의미이므로 예문이 적절하다.
- ②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란 의미이므로 예문이 적절하다.
- ④ ‘기세를 누그러뜨리다.’란 의미이므로 예문이 적절하다.

20170613 적중 하프 모의고사 6번, 20160527 지방직, 서울시 동형 문풀 5번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해설]

2문단에서 조간대를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윗글을 통해 ②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정리]

① 3문단의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부분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③ 3문단의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부분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④ 1문단의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고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부분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20170614 적중 하프 모의고사 11번, 20161223 기출정해 꼭지시험 3번, 20170526 적중 하프 모의고사 12번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본론에서 수출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가격 경쟁력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런 후, 결론에서 이를 정리·분석하면서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시된 개요의 목적은 ‘수출 경쟁력의 향상’이다. 따라서 제시된 개요를 기초로 한

글의 주제문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정리]

- ①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개요의 결론을 볼 때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내수 시장 기반 강화’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내수(內需, 국내에서의 수요) 시장’은 ‘수출’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③ 실태 중 ‘비가격 경쟁력 요인’에 관한 대안만 제시한 것이므로 글 전체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20170609 적중 하프 모의고사 4번, 20170530 적중 하프 모의고사 7번, 20170513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형 문풀 9번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해설]

‘당신’은 크게 2인칭 대명사와 3인칭 재귀 대명사로 나뉜다. ㉡의 ‘당신’은 후자로, ㉣ ‘할머니’의 재귀 대명사이다. 따라서 ㉣과 ㉦은 같은 사람(할머니)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답 정리]

- ① ㉠은 의미상 3인칭 대명사로도 기능하지만, 제시된 문맥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2인칭 대명사이고, ㉡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1인칭 대명사이다. 따라서 ㉠도 1인칭 대명사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 ‘우리’는 ㉣의 ‘저’를 아우르는 말(1인칭)은 맞다. 그러나 ㉣의 ‘할머니’를 아우르는 말은 아니다.
④ ㉣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3인칭이고, ㉥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의 말이다.

[보충] ‘당신’과 ‘우리’

당신	2인칭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	-----	--------------------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3인칭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예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1.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예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2.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예 우리 먼저 나간다. 수고해라. 3.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예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20170614 적중 하프 모의고사 10번, 20161223 기출 족자시험 7번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해설]

㉠과 ㉡에서는 동물도 인간처럼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

에서는 동물의 소리와 인간의 말 차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㉔은 ㉑과 ㉒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㉓의 설명은 옳다.

[오답 정리]

① ㉑은 화제를 제시한 부분으로, 필자의 생각과 상반된다. ㉑의 내용을 ㉔에서 서술자가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논증의 결론인 주제문은 ㉑이 아니라 ㉔이다.

② ㉒과 ㉑은 같은 의미의 상술에 해당하므로,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A 즉 B' = 'A=B'

④ ㉔은 '근거'가 아니라 '결론'이다. ㉔ '결론'의 근거가 ㉔이다.